



04

**POWER INTERVIEW**

“공익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사람에 대한 애정”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

32

**LAW FIRM TOUR**

“나만의 이야기와 가치’  
담고 있는 인재 주목”

법무법인[유]  
로고스

36

**LETTER FROM**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호문혁 명예교수

# 癸卯年 2023

안녕하십니까?

계묘년(癸卯年)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제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법전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법전원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한 가운데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인류가 혼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그 긴 터널을 벗어나는 듯했지만, 새해를 맞이한 지금까지도 감염병의 위협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전원 교수님, 직원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신 덕분에 법전원의 제반 기능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법전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4년 동안 25개 법전원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의 설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법전원에서 마련한 특별전형제도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958명의 학생이 법조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특별전형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매년 전체 재학생 6,000명의 20%가량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는 학생도 매년 30%를 상회할 만큼, 재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5개 법전원의 이러한 노력으로 그동안 총 17,761명의 변호사가 법전원에서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기존에 법조인들이 누렸던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법전원은 사회적 책임 의식과 전문성을 갖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공헌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대내외의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누구나 실력과 의지만 있으면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법전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 상 경



<b>POWER INTERVIEW</b>	04
이진혜 변호사	
<b>HOT ISSUE</b>	08
<b>HAPPY LAWSCHOOL</b>	10
유승하 학생	
<b>BOOK</b>	13
<b>REAL STORY</b>	14
<b>CONTEST</b>	22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b>EVENT</b>	27
표지사진 공모	
<b>LIFE</b>	28
로스쿨 학생들의 최애 어플 TOP 8	
<b>LAW FIRM TOUR</b>	32
법무법인[유] 로고스	
<b>LETTER FROM</b>	36
호문혁 명예교수	
<b>OPINION</b>	38
<b>SPECIAL REPORT ❶</b>	4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서 전문	
<b>SPECIAL REPORT ❷</b>	4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작 리플렛	
<b>HEALTH MENTORING</b>	46
공하성 교수	
<b>CULTURE</b>	48
변호사 유니버스	
<b>EVENT</b>	51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b>BOOK</b>	52
김민정 변호사	
<b>AKLS NEWS</b>	54
<b>OUT CAMPUS</b>	56
<b>QUIZ</b>	57

2023.  
JAN + FEB + MAR



표지 이미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공모한  
<로스쿨창 표지 공모전> 수상작

<동기사랑>  
졸업을 앞둔 동기 원우들을  
담아냈다.  
박현호(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3년 1월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행인 이상경  
홍보위원회 위원장 최윤철  
위원 김명기, 김별다비, 송민경  
편집 박소희  
등록번호 2289-0262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02-752-2037)  
디자인 ㈜그리고나무 (02-2268-2592)  
인쇄 ㈜빅북프렌즈



빈곤자,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이주노동자, 난민, 탈북민 등 여러 사정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공익변호사라 부른다. 이진혜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로서 7년 동안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해 왔다. 그를 만나 공익변호사로서의 일과 삶에 대해 들어봤다.



## 공익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사람에 대한 애정

이진혜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곳에서 상근 변호사이자 사무국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일도 하고 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이주민(또는 사건)은?**

**A.** 오랫동안 이어진 사건이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다. 별명이 ‘비비’인 나이지리아 남성분인데,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다가 한국 국적인 여성분을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 여성분은 아이를 낳고 사라져, 비비 혼자서 트럭 운전을 하며 아이를 키웠다. 아이에게 엄마가 있기 때문에 친부 쪽으로 출생신고를 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아이의 엄마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한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아이는 한국 국적자가 되었지만, 비비에게도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는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이번에 체류자격만 받으면 내 역할은 어느 정도 다 하지 않았나 싶다.

**Q. 이주민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입법안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아이들은 신분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도 없고, 학대 피해를 받아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도 크다. 외국인 강사 비자인 E2 비자 발급의 경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7개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공)의 외국인에 대해서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 7개 국가들 중 대다수가 백인이 많이 거주하는 나라인데, 이 또한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Q. ‘이주민센터 친구’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A.** ‘이주민센터 친구’는 한국에 머무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비영리단체로, 대립동에 자리 잡은 지는 10년 정도 됐다.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립동 일대를 터전 삼아서 이주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이주민 교육, 문화교류, 생활 지원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위탁운영 중인 서울 서남권 글로벌센터에서도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한국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Q. ‘이주민센터 친구’와는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A.** 성균관대 로스쿨에 다닐 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 봉사활동(라파엘클리닉)이 인근 고등학교에서 주말마다 열렸다. 부스 한 편에 진료받으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주는 자리도 마련되었는데, 당시 성균관대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학생들이 참여하여 법률상담 지원을 했다. 통역을 하거나 상담 기록을 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보조 역할이었지만, 이 봉사활동을 계기로 이주민센터 친구와 인연을 맺게 됐다.

**Q.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A.** 다양하다. 법률상담을 하고 구조 사건도 수행한다. 교육이나 특강도 하는데, 교육은 주로 대립동 인근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주민권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업무 형태에 따라 공익변호사의 일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또 본인의 적성은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보길 권한다.



이진혜 변호사가 기획 운영한 '이주민활동가를 위한 법률통번역교육' 수료식 모습 (사진=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주민센터 친구)

**Q. '불법체류자'라는 잘못된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 시선이 만연해있다. 현장에서 느끼나?**

**A.** '당신은 인종차별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한다. 또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런데 정작 일로써 외국인을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어하고, 당황해하며, 싫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게 나의 인상이다. 민원인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정부 기관 직원조차 예외는 아니다. 한국 말을 잘하는 외국인들도 많은데,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반말을 하는 등 굉장히 무례하게 대한다. 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경우 대면으로 민원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도 제대로 된 설명

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Q. 코로나19 시기엔 차별이 더 심해졌을 것 같은데.**

**A.** 지금은 장기체류자격이 있으면 대부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코로나 초기엔 건보료 대상이 아닌 외국인과 유학생들은 마스크를 살 수가 없었다. 재난 지원금도 외국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만 주겠다고 하는 등 정책이 일관성 없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당시에 인권위에 진정을 넣기도 하고, 이주민센터 친구를 찾아온 외국인들의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대신 써주기도 했었다.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모두 동일하지만,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Q. 이주민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로만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겠다.**

**A.** 단순히 법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물론 제도 개선을 할 때는 입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주민센터 친구에서도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거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웃음).

**Q. '이주민센터 친구'를 찾아오는 이주민들의 국적이 다양할 텐데,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없나?**

**A.**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남권글로벌센터에 외국어 상담원분들이 여럿 계신다. 영어, 중국어, 파키스탄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다국어 상담원분들이 배석해 교차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은 크게 느끼지 못한다.

**Q. 이주민들에게 상담료나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나?**

**A.** 소송 비용은 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돼 있어 이주민들 상담을 한 후 소송 구조를 신청·수행하고 있다. 구조결정을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소송구조기금으로 모으는데, 인지

대·송달료나 교통비 등을 기금에서 충당한다. 상근변호사들의 급여는 공익변호사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거나, 풀뿌리 후원을 받아 후원금으로 지급한다.

**Q. 공익변호사로 활동한 지 어느덧 7년이다. 2021년엔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도 수상했는데, 이처럼 헌신적으로 공익 변호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A.** 특별히 헌신하는 것 같지는 않다(웃음). 옛날에는 모든 게 처음이라 일단 다 부딪쳐봐야 했고, 그런 면에서 다소 힘든 부분이 있었다. 요즘엔 운영 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경험도 쌓여서 재미있다. 공익변호사 지원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도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줬고, 2022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공익펠로우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다. 우리 센터는 후원금만으로 운영이 되는데, 외부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니 큰 도움이 됐다.

**Q. 공익변호사로서의 애로사항에는 무엇이 있나?**

**A.** 언어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상담에서 만나는 이주민들은 대부분 좋은 분들이다. 그런데 가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주민과 함께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할 때도 좀 힘들다. 체류자격을 부여받거나 연장할 때 변호사의 설명이 필요해 동행하는데, 이주민에게 무턱대고 반말하는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Q.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현실**

**적인 조언을 해준다면?**

**A.** 나도 학생 때에는 공익변호사는 생계보장이 안 되니까 전업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몇 년 해보니 인생에 큰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웃음). 요즘엔 로펌 공익네트워크 단체에 소속된 공익변호사들도 많다. 또 대형 로펌에서 출원한 곳들은 월급이 밀리거나 안 나올 걱정은 없고, 급여수준도 웬만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 정도는 나오니까 그렇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공익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A.** 공익변호사의 업무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 본인이 기획업무에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송무를 충실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먼저 파악해보면 좋겠다. 업무 형태에 따라 공익변호사의 일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또 본인의 적성은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보길 권한다.

**Q. 공익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A.** 결국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본인이 진행하는 업무와 구성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훨씬 더 일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애정이 없어도 공익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지만, 애정이 있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은?**

**A.** 아직 첫 학기이긴 하지만 요즘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다. 사회보장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수료라도 하고 싶다(웃음). 이외에는 크게 특별한 계획은 없다. 함께 일하는 분들과 친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issue 01

**제3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 열려**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11월 14일(월)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제3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를 개최했다. 로스쿨 실무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법정 변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모의재판> 교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재학생 전원이 3~5인씩 팀을 이뤄 참여했다. 예선과 본선을 거친 결과 대상은 변호인팀(신유준, 안재서, 우영은, 조범연, 한동희)이 차지했고, 최우수변론상은 검사팀의 백민령 학생이 수상했다.



issue 04

**양창수 전 대법관 리더십 훈련 특강**

11월 23일(수)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양창수 전 대법관이 '우리 법률가의 빛과 그림자-보람과 반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양 대법관은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사회에서 법이 해야 할 일과 올바른 법률 전문가의 길에 대해 전했다. 이날 특강에는 약 8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23년간 재직하고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양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issue 02

**아주대학교 로스쿨 예비 법조인을 위한 주산법률강좌 개최**

10월 28일(금) 아주대학교 로스쿨은 예비 법조인을 위한 명사 특강 시리즈인 '주산법률강좌'를 시작했다. 주산법률강좌는 재학생들이 보다 깊이 있게 사고하고 폭넓게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아주대 로스쿨에서 법조계 명사들을 강연자로 초청해 진행하는 강좌이다. 첫 강연자인 안대희 전 대법관은 법률가로서의 경험과 보람, 법률가의 자세와 마음가짐 등에 대하여 강연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법률가로서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잘못된 법적 판단을 주의해야 한다"며 "법기술자가 아닌 법률가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용기와 결단력, 집념을 가져야 소신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강연으로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issue 05

**이화여대, 중앙대, 건국대 중간·기말고사에 CBT 적용 시행**

이화여대, 중앙대, 건국대는 2022년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일부 과목을 CBT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험은 학생 1인당 책상 2개와 노트북 등이 지급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교실 내에서 인터넷선을 허브로 연결했다. CBT 방식으로 시험을 본 학생들은 답안 작성 시 속도가 빨라졌으며 손목이 아프지 않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답안지 출력 및 본인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데이터 과부하로 전체 전원이 차단(shut-down)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일반 강의실은 CBT 시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닥 및 전기 승압 공사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개선 사항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본시험에 CBT를 도입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issue 03

**원광대 로스쿨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진행**

11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원광대 로스쿨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한 제19회 천만송이 국화축제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원광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는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법률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에는 로스쿨 교수 3인과 현직 변호사 2인, 로스쿨 재학생들이 참여해, 익산시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issue 06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행**

전국 25개 대학 시험장에서 1월 10일(화)부터 5일간(1월 12일, 휴식일) 제12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됐다. 제9회 시험까지는 서울 내 몇 개의 대학에서 시행되었으나, 제10회부터는 로스쿨이 설치된 25개 대학의 시험장으로 확대됐다. 제12회 시험에는 총 3,644명이 출원했으며, 합격자 발표는 4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법전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은 부산대 로스쿨, 동아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을 차례로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 로스쿨에서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에 나눠주는 삶, 살고 싶어

“졸업을 해도 고향인 대전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역인재의 수도권 풀림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충남대 로스쿨 유승하 학생처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사람도 있다. 유승하 학생을 만나 의미 있는 결심을 한 이유를 들어봤다.

### Q. 학부 시절엔 무엇을 공부했나?

A. 주 전공은 ‘철학’이고 ‘스포츠심리상담학’을 복수 전공하였다. 사실 철학을 배울 때까지만 해도 공부에 큰 뜻이 없었는데, 스포츠심리상담학을 공부하면서부터 공부가 재미있게 느껴졌다. 스포츠심리상담은 선수들이 시합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심리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철학과에서 배운 사상들과 심리학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더욱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 Q. 로스쿨 진학 계기는?

A. 스포츠심리상담을 배울 때의 일이다. 당시 스포츠계에서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감독과 팀닥터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그해에 사망한 선수의 이름을 딴 법안(최

숙헌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사건이 생겨야만 법이 제정되는 현실이 몹시 안타까웠다. 공부를 할수록 스포츠 인권 문제는 법학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훗날 스포츠심리상담을 하더라도 법을 알고 있으면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로스쿨에 진학했다.

### Q. 충남대 로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A. 대전에서 태어나 죽 대전에서만 살고, 부모님께서도 충청도 분이시다. 워낙 집을 좋아해서 그런지 타지역에 가면 얼른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웃음). 그러다 보니 나중에 졸업을 해서도 고향인 대전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대전 지역 로스쿨을 나오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마침 지역 로스쿨에는 해

당 지역 대학교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sup>1)</sup>가 마련돼 있었다.

### Q. 로스쿨에서의 1년, 어떻게 보냈나.

A. 1학기 때에는 법학과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웃음). 학부 시절 ‘인권과 법’ 수업을 들어보긴 했지만, 법 지식이 전문한 상태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 첫 학기 중간고사를 본 후에도 답안지 작성 요령이 너무 없다는 느낌을 스스로 받을 정도였다. 또 첫 학기에 법조윤리 수업을 들었는데, 다수의 학생이 듣는 수업이라 늦은 저녁에 시작되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보다는,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더라(웃음).

### Q. 로스쿨 입학하자마자 슬럼프가 찾아온 것 같다(웃음). 어떻게 극복했나.

A. 슬럼프가 올 때는 관심을 아예 다른 곳으로 돌린다. 타지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생이 주말마다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같이 수다도 떨고, 집 근처 카페나 맛집을 찾아다녔다. 동생이 ‘못하더라도 괜찮다’며 응원해줬고, 가족들도 많이 격려했다. 부모님께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졸업만 하라고 하시더라(웃음). 돌이켜보면 가족들은 내가 고등학교를 자퇴할 때에도 반대하지 않고 지지해주었는데, 그때의 지지와 사랑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역 대학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예정)한 자의 수가 모집인원의 5%~15% 이상이 되도록 선발해야 한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내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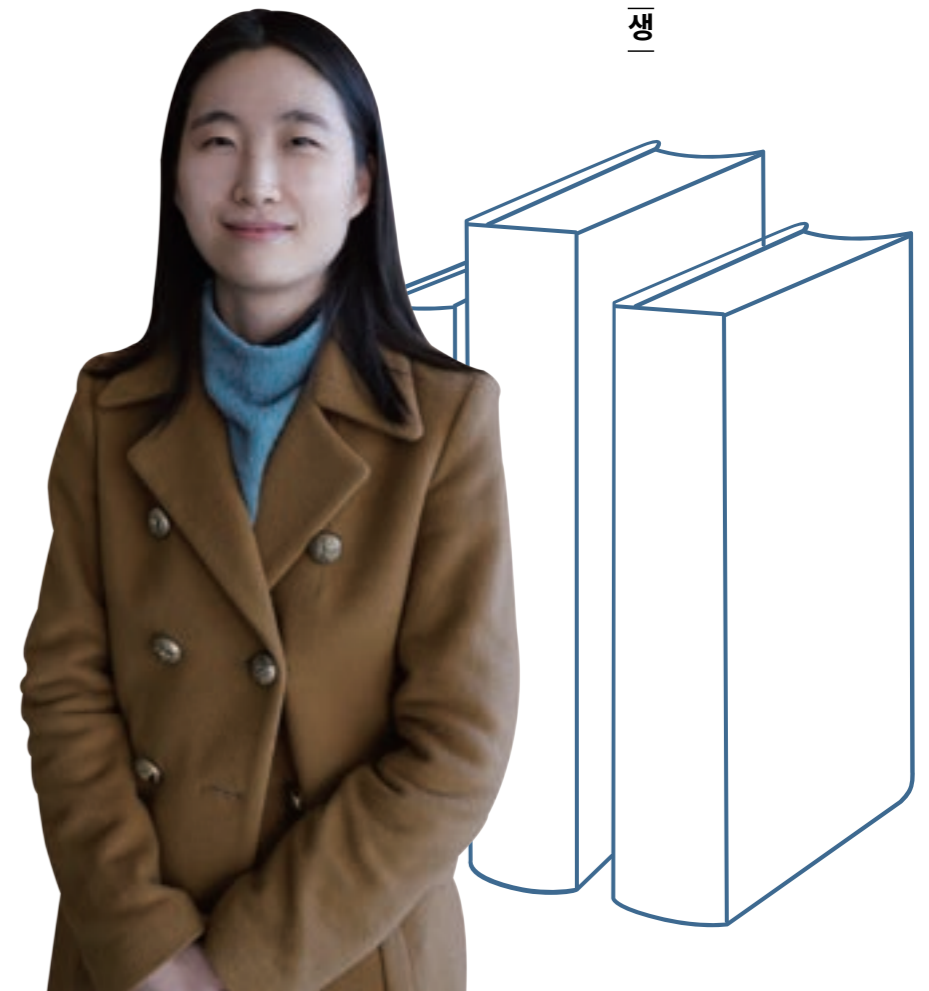
### Q.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A. 중학교 때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지레 겁을 먹었다. 고등학교에 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모두 고등학교에 진학하니 나도 따라서 진학은 했으나, 진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벽에 부딪혔다.

학교에서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었다. 반대로 학교를 그만둔 후 집에서 혼자 대입 준비를 했던 경험이 로스쿨 입시를 혼자 치르는 데에도 도움이 된 것 같다. 지금은 그때보다 성숙해진 덕분에 학교에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도 익숙해졌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유승하  
학생



**Q. 법학과 친해지는 노하우를 소개해준다면?**

**A.** 나처럼 썸비법이고 법이 무섭기까지만 학생이라면 학부 강의를 먼저 접해보면 좋겠다. KOCW나 학교 도서관 포털에 학부생들을 위한 법학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다. 나의 경우에는 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체계를 잡기 위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 동영상 봤는데, 설명이 쉬워서 큰 도움이 됐다. 다만 이 방법은 수험법학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웃음).

**Q. 가장 재미있는 과목과 그 이유는?**

**A.** 요즘엔 회사법이 재미있다. 회사법은 민법과 형법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다른 법과 다르게 조문만 잘 해석하면 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미있는 과목은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웃음).

**Q.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A.** 변호사가 된다는 전제로 이야기하자면, 충청권에서 뛰는 실업팀 선수와 학생 선수에게 스포츠심리상담을 비롯하여 법률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로스쿨에서 3년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나의 지식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기쁨이겠다.

유승하 학생이 알려주는  
지역균형인재 선발전형 입학 팁



**지역균형인재 선발**

**전형 지원전략은?**

일반전형이 전국에 있는 뛰어난 분들과 경쟁해야 한다면, 지역균형인재 선발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뛰어난 분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 범위를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온 학생이라면 가군/나군 중 한 군데는 '지역균형인재 선발 전형'으로 지원해보면 좋겠다. 졸업 후의 진로를 생각해서 수도권 로스쿨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긴 하지만, 충남대 로스쿨의 경우 바로 옆에 세종시도 있고 공공기관도 많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리트와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논문 사이트(DBpia)에 들어가서 논문을 한 편씩 읽었던 습관이 큰 도움이 됐다. 논문은 저마다의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읽으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논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당시 읽었던 논문이 리트 문제에 출제되기도 하였고, 면접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



**로스쿨 입학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에 대하여**

인터넷에 떠도는 로스쿨 합격 후기 중에는 '스터디에 무조건 가입하라'는 조언이 많은데,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라면 스터디에 가입하지 않고 혼자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나처럼 혼자 준비하는 게 맞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 자신만의 준비 방법을 터득하면 좋겠다.



**2022년도 제3차(10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지난 10월에 시행된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별 문제와 해설이 담긴 해설집이 발간됐다. 문제별로 정답률을 수록해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역별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제작 대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 / 사례형에 한함
판매 가격	2022년도 제3차(10월 시행) - 단행본(10,000원) 택배비 5,000원 (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신청 방법	상시 주문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awschool@leet.or.kr) 송부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2022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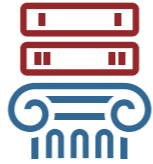
법학적성평가연구원은 지난 11월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을 출간했다. 이 책은 LEET 기출문제 공식 해설서로, LEET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고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출제 기관인 법학적성평가연구원에서 기획하여 매년 펴내는 도서이다. 이번에 출간한 제13판은 LEET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 문제 및 이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영역별 최신 5회분(2023~2019학년도)과 과거 6회분(2018~2013학년도)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 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
출 판 사	에피스테메
발 행 일	2022년 11월 30일
판 매 가 격	8,000원~22,000원

# 입법 분야 관심으로 모인 로스쿨 학생들

## -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이야기



김현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입법 분야는 최근 법조인들에게 새롭게 주목을 받는 영역이다. 이에 따라 자연히 입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도 생겨나고 있다. 공통된 관심을 공유하는 7개 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가 모여 함께한 1년간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 입법 분야 관심으로 모인 로스쿨 학생들

법조 진로가 다양해지며 로펌 입법지원팀, 입법조사관, 의원실 보좌관 등 입법 분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법 분야는 기존의 송무·자문 분야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분야면서도 최근 그 관심과 수요가 증가 중인 영역입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도 입법지원, 정책, 법제 등에 관심 가지고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 입법정책학회에서 학회장을 맡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2년 초, 다른 로스쿨 입법정책학회의 학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법 분야에 관심을 가진 로스쿨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회 연합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아직 로스쿨 내에서는 입법 분야가 다른 분야만큼 관심받는 분야는 아니었기에, 저에게는 이 제안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준비 끝에 입법에 대한 관심을 모아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라는 이름으로 연합 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합에는 현재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법정책학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입법자문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 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해주시며 더욱 풍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학회 연합을 넘어, 입법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폭넓은 커뮤니티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년간의 활동을 토대로, 입법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로스쿨생들이 어떤 활동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담아내고자 합니다. 나아가 입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다른 많은 로스쿨생 여러분들과 경험·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차곡차곡 쌓아 올린 입법 관련 경험들

로스쿨 생활을 하다 보니, 진로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고 관련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년간 많은 양을 압축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로스쿨 생활의 특성상 그러한 기회에 어느 정도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회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학술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도, 진로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다면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실 인턴십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여 입법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실제 관련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열고자 했습니다. 국회는 다른 어느 곳보다 입법 관련 업무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간 국회사무처를 통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있어왔으나, 직접 개별 국회의원실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국회의원실을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고, 눈앞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 보좌관의 업무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의원실 측으로부터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기대 이상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보람을 느낀 활동이었습니다.

학회들끼리 힘을 합친 만큼, 학술 활동을 통해서도 연합의 취지를 살려보고자 했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에 더하여, 그 분야의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깊이 있게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함께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술 세미나는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2학기 기간을 활용하여 2022년의 주요 입법정책 이슈를 주제로 학술 발표와 토론을 나누는 연합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 빅데이터, 망무임승차방지법, 치료적 사법, ESG, 자율주행차 등 최신 이슈와 입법정책적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발제해주신 학회원님들 덕분에 평소 학교 수업에서 깊게 다루기 어려운 흥미로운 주제들에 대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 같은 목표를 함께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

1년간 여러 활동을 진행하며 힘든 로스쿨 생활에서 같은 목표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로스쿨 재학 기간은 불과 3년이지만, 이곳에서 만난 인연은 10년, 20년 후에도 언제나 동료로서 함께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 활동은 같은 관심 분야나 진로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하계 국회 인턴십 발대식 기념 촬영

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에서의 3년은 보통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으로 활동 반경이 좁아지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의 인간관계 역시 재학 중인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나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표를 함께 바라본다는 것에 있어 학교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변호사 시험이라는 목표 앞에서 각자 바쁘지만, 그럼에도 같은 꿈을 공유하는 동료들과 함께 경험을 나눈다면 3년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꼭 입법 분야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학교를 가리지 않고 관심 있는 동기들을 찾아보고, 함께 해 볼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생각 이상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에 관심 있는, 또는 어떤 분야든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고민하는 로스쿨 선배·동기·후배님들께 이 글에 담긴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에서 학회장을 맡고 있는 학생과,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변호사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 분야에 대한 로스쿨생 및 현직 변호사의 구체적인 시선과 고민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Q. 법조인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로스쿨 학생들이 입법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이유가 있을까요?**

**A.**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저는 “악법도 법이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악법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법을 폐지하거나 좋은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팀의 업무입니다. 하나의 법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주어진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끌어 올려 줄 수 있는 법령과 정책을 만드는 일에 젊은 법조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 입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하여는 로스쿨 학생들도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다수 법조인들이 일반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와 입법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법조의 주된 업무는 사법부와 관련된 송무 분야이거나 M&A 등과 같은 자문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하기 보다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좀 더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행정부 또는 입법부(국회의원, 국회 사무처 등)의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입법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법조인들이 반드시 갖추거나 키워야 할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무엇보다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입법자문팀이 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모토는 “흰 눈위에 첫 길을 만든다”입니다. 입법자문이라는 용어가 주는 매력에만 빠져 지원하는 젊은 변호사들 중에 중도에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법자문분야는 기존에 이미 잘 발전되어지고 수익성도 보장된 다른 분야보다 훨씬 거칠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처럼 잘 정비되고 발전되고 있는 미국 동부 13개 주를 떠나 마차타고 서부로 달려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디언의 공격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지독한 굶주림에 삶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라 우리 모두 운명공동체로 묶이지 않으면 이 어려운 도전을 헤쳐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항해시대의 개척자들과 같은 도전정신으로 충만한 젊은 법조인들이 필요합니다. 업무 능력은 함께 고난을 헤쳐가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입법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입법자문팀에 대한 환상을 버리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이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다만 10년 후 대한민국의 입법자문분야가 활짝 꽃을 피울 때 이 분야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그 때를 위해 고생스럽지만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서부 개척시대의 도전을 함께 해 보고 싶은 분, 새로운 대륙을 찾아 미지의 세계를 기꺼이 탐험해 보고 싶은 개척정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이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인터뷰이. 백대웅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회원들의 모습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 연합 학술 세미나

**Q. 로스쿨에서 입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1학년 3월 말쯤에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백대웅 변호사님으로부터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법자문 팀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의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부, 시민단체 등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매력적인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마치 영화처럼, 제가 하는 일이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입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강연에서 변호사님께서 콜럼버스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 주신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장면처럼 하나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에서 1년간 기획·진행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을까요?**

**A.** 연합으로서 한 첫 활동인 국회의원실 인턴십이 기억에 남습니다. 로스쿨생들과 개별 국회의원실을 연결하여 인턴십을 하나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것은 올해가 최초입니다. 의원님을 컨택하고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매칭을 한다는 발상의 모든 부분이 크나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부딪혀서 매 순간 심혈을 기울인 결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분 모두에게 입법의 최전선인 국회의원실에서 쌓은 경험은 값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첫 프로그램이라 부족한 점도 많았던 만큼,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학회장으로 1년간 활동한 소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믿음직한 동료들과 함께한다면, 일단 부딪혀보면 뭐든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단체의 힘은 결국 활동을 해내는 것에 있는데, 처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활동을 하나하나 해나가며 체계가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 개개인에 의해 움직이는 학회에서 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학회로 발돋움했다고 느껴집니다. 내년에도 인수인계를 잘해서, 올해 했던 활동들을 무사히 해내고 새로운 활동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심양면으로 활동을 지원해 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이. 변상훈  
연세대 입법정책학회 학회장

## 로스쿨에서의 시행착오



엄수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 I. 입학 전 (12월~2월)

나는 2021년 12월 초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였다. 결과 발표 전에는 불합격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했는데 합격 소식을 듣고 나니 기쁨도 잠시, 입학 전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먼저, 입학 전 마지막으로 길게 여행을 다녀오고 확실하게 휴식을 취할 것인지, 첫 학기를 대비하여 촘촘하게 계획을 짜 선행학습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다니던 직장이 있어서 학기 전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를 비축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렇지만 2월 말까지 내가 맡은 업무를 마무리해야 했고, 공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업무와 선행학습을 병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선행학습 방법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을까 생각도 했으나 수강 시간과 복습 시간까지 합치면 너무 많은 시간과 체력을 할애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민법 교과서를 혼자 공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두꺼운 법학 교과서를 안내자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 무모한 것은 아닐까 걱정되어, 비슷한 고민을 했던 로스쿨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다.

선배는 법학 공부가 처음이고, 강의 없이 혼자 공부할 거라면, 무작정 교과서만 읽기 보다는 기출문제 사례집과 동시에 공부할 것을 추천하였다. 기출문제를 통해 어떤 쟁점이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여 문제의식을 품고, 해설을 찬찬히 읽으며 해설의 논증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메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쓰신 교과서를 읽으며 해당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방식이다.

나는 민법 교과서로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강의』, 사례집으로는 송영곤 변호사의 『민사법 사례연습II』를 선택하였다.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에도 이 두 권을 기본 교재로 삼아 공부하였다. 다른 법학 과목을 공부할 때도 교과서와 사례집을 병행하며 이해의 틀을 잡았다.

### II. 1학기 (3~6월 중순)

1학기 개강 이후에는 나의 공부 속도와 방식에 맞추어 어떻게 수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비할지를 고민하며 공부하였다. 우선, 각 수업마다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료가 달라서 수업별로 적응하는데 꽤 힘이 들었다. 교과서 없이 법조문과 판례(「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중심으로 진행하는 수업, 교과서를 사용하는 수업,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강의안을 주로 활용하는 수업 등이 있었다. 나는 수업 자료를 미리 꼼꼼하게 읽어가고, 수업에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의문을 해소하는 '예습'위주의 학습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복습'위주의 공부를 했다. 수업 전에 빠르게 수업자료를 눈으로 훑고 키워드를 파악한 뒤, 수업시간동안 수업자료를 최대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각 자료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암기할 분량으로 축약한 뒤, 정리한 내용을 위에서 말한 『민법강의』와 『민사법 사례연습II』에 덧붙였다.

중간고사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교수님마다 문제를 출제하시는 방식, 강조하시는 항목, 요구하시는 답안 작성 방식 등이 달라서 과목마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다. 교수님들께서 미리 평가 방식에 대해 수차례 강조해주셨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진 채로 공부할 수 있었다.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시는 경우, 사례집을 반복해서 보며 목차를 잡고 암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판례를 각색하여 교수님께서 직접 시험 문제를 제작하시는 경우, 조문과 판례, 학설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집을 다회독하는 것뿐 아니라 교과서를 읽으며 쟁점별로 법리를 구조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중간고사 때는 배운 양도 적고 각 과목의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배워서 풀어야 할 사례도 적었다. 그래서 비교적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중간고사 성적이 나올 무렵,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를 공부해야 했다. 내용을 아무리 정리해도 암기할 분량이 너무 많았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급박한 마음에 집중도 잘 되지 않았다. 뒷부분에 가서는 법리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당장의 답안 현출에 필요한 암기를 하였다. 당시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방향감을 상실하여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있다. 시험일은 다가왔고, 법전이라도 베껴 쓰자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러냈다. 하루에 두 세 과목의 시험을 보며 시간과 체력 안배도 잘 하지 못하여 안타깝게도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었다.

### III. 2학기 (9~12월 중순)

1학기에는 법학이라는 미지의 학문이 주는 낯섦과 방대한 양이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 이것저것 두서없이 공부하느라 바빴다면, 2학기에는 이러한 어려움에 어느 정도 적응해서인지 다음 단계의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머릿속에 입력한 내용을 어떻게 '출력'할까에 대한 고민이었다. 아무리 이해를 잘 하더라도 이를 정리하여 답안지에 알맞은 분량으로 현출하지 않는다면 배점에 상응하는 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행학습 시기와 1학기 때 교과서와 사례집을 병행하며 공부하던 것에서 나아가, 각 쟁점이 '왜' 문제화되었는지 고민하며 공부하는 것에 고민에 대한 답이 있었다. 첫 번째로 사례집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 근거 조문과 판례, 법리를 통해 해당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이해한 뒤, 세 번째로 판례원문과 교과서를 통해 '왜'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이 때, 판례 검색에는 로앤비 플러스라는 어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각 단계별 이해를 거친 후 판례원문을 읽으면, 비로소 판례의 키워드와 핵심문구가 왜 등장했는지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암기하게 된다. 이는 고되고 힘든 공부 방법이지만, 단계별 이해를 거친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자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적은 분량을 암기하지만 해당 키워드를 통해 문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 암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결국 1학기와의 차이점은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는 높이면서, 배점에 맞는 양의 답안을 출력하는데 필요한 암기를 하게 해주었다. 덕분에 학점도 꽤 상승하였다.

2학기를 마무리 하며 되돌아보니, 올 한 해 동안 배운 내용을 갈고 닦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년에 새로운 과목들을 배운다고 생각하니 앞길이 구만 리처럼 느껴진다. 특히 실무과목과 같은 전혀 새로운 과목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 학기 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방학 중 실무수습도 나가는 등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더욱 막막하다.

그럼에도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시행착오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또 한 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올 한 해 공부 방법과 방향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임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배울 수 있지 않았던가.

# 사람들을 위로하는, 당신들에게 전하는 위로

## - '행복하게 예술할 권리'를 만들기까지-



김예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술 작품들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버스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시집을 읽기도 하고, 법학관에 강의를 들으러 가며 벽에 걸린 그림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쉬는 시간에는 매일 올라오는 웹툰을 보고, 공부를 마치고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예술작품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걷던 길을 걸을 때에도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따라 하루가 더욱 활기차게 느껴지기도 하고,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케이스에 프린트된 사진들을 보며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비단 개인의 삶에서 예술이 미치는 영향력을 넘어 예술작품은 큰 산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전세계에서 흥행에 성공하였고, BTS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술 작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와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품을 만드는 예술인들의 권리는 얼마나 보호되고 있을까요? 자신의 저작권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폭력에 노출되는 등 여전히 예술인들의 권익에 대한 보호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하는 조원들이 모여 제11회 동천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100여명의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88%가 법률정보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95%의 응답자가 예술인 관련 법률정보 제공하는 강의가 있다면 수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극복하기 위해 예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불공정 계약,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처, 노동문제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책자를 제작하여 각 예술대학교 및 고등학교 등 여러 기관



이선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에 배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에서 후속 활동 지원을 해주셔서 단순히 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책자 제작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과 구성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책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차 구성과 서술 방식을 여러 번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나열하는 것 보다는 예비 예술인인 선호가 작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술 활동에 필요한 법률 정보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내용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면, 책을 읽는 예비 예술인들 역시 선호에게 이입해서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예술인들이 궁금해하였던 저작권 파트, 두 번째로는 어려운 법률 용어로 낭패를 보기 쉬운 계약서 작성, 마지막으로 부당대우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저작권이나 불공정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틈틈이 도서관에서 관련된 서적을 빌려서 읽어 보고 교수님이나 현업에 나가 계신 선배님들께 질문을 드리며 저희도 함께 배우면서 책자를 작성했습니다. 사실 저작권과 노동문제는 평소에도 관심이 있는 분야였지만, 로스쿨 생활 중에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 미뤄두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책자를 작성하면서 관심사에 대해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십번의 퇴고 과정을 거쳐 내용을 완성하고, 책 표지 디자인부터 구성까지 하나하나 직접 정했습니다. 제본을 맡긴 책이 도착하였을 때는 땀방울을 쏟아 부은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는 기쁨도 잠시, 예술 관련 기관들에 연락을 하느라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중앙대학교 영화학과를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한세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등 다양한 예술 분야 학교 학생회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많은 분야의 학생들에게 책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기관에 책을 보내다 보니 잊지 못할 사연도 많이 쌓였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직접 배달을 하기로 하였는데, 손수레에 책자를 싣고 걸어서 인권센터에 직접 전달하여 더욱 뿌듯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배포된 책자

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책 상자가 비어가며 약간의 허전함도 느꼈지만, 책을 잘 받았다는 연락이 올 때 마다 노력이 조금이나마 보답 받는 것 같아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연히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인 친구로부터 음악대학 피아노실 창문 너머 저희가 작성한 책자를 발견하였다는 사진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만든 책을 실제로 예술인들이 읽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했고, 이제까지의 노력이 보답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적은 도움일지라도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였고,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안서 작성부터 1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없는 책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쁜 로스쿨 생활 속에서 때로는 학업 외 활동에 시간을 쏟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었을 때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법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책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단순히 짧은 문자로 담은 내용과 전혀 다른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고, 대처법을 아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무거운 부담감이 그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술인이 되어 세상을 위로할 예비 예술인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쉽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저희의 마음이 언젠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다시금 여러분을 위로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원고 파일을 닫습니다.



동천 공익 인권 프로그램 제안대회 상장



완성된 표지



중앙대학교 영화학과에 비치된 책자

# 변론 기량 겨루는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열려

로스쿨 학생들이 모교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도전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1월 3일 서울법원 종합청사 내 실제 법정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연세대 로스쿨 팀과 고려대 로스쿨 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3일 오후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형사부문 결선 모습. (사진=사법연수원)



이상경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이 3일 오후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사법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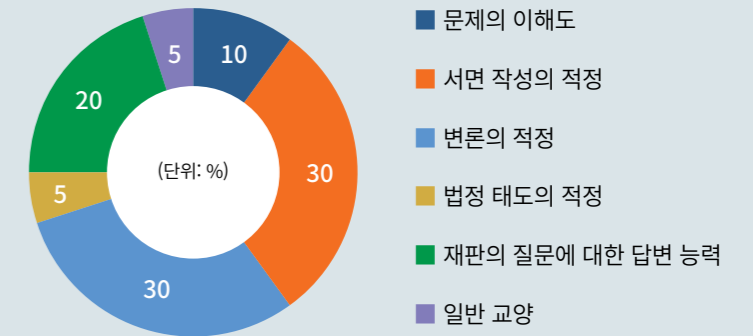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실제의 사건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 역할을 하면서,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겨루는 대회이다. 대법원 판결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녹아있는 법원칙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설득력 있게 논증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대회이다.

이번 대회 예선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146개팀(438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 중 민사와 형사 각 16개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각 부문 4개팀씩 결선에 진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온라인 원격재판방식으로 진행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법정에서 경연이 진행됐다.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모의법정이 아닌 실제 법정에서 경연이 이뤄졌다.

## 본·결선 대회 흐름도



## 평가 항목 및 배점



## 수상결과

구분	민사	형사
1위	연세대(신연규, 김은수, 장유진)	고려대(김민주, 곽동민, 최일윤)
2위	서울대(정한솔, 김병렬, 이승현)	한국외대(김보민, 최용후, 문원영)
3위	충북대(신호철, 신창환, 백소현)	성균관대(박수지, 한민석, 고귀한)
4위	서울대(이수현, 김소연, 정예림)	아주대(조재혁, 양태경, 오시아)

※ 개인최우수상: 연세대 장유진(민사), 아주대 오시아(형사)

민사부문에서는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조합채권인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가, 형사부문에서는 ‘성매매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의 비밀녹음 증거능력’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진지한 자세와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꾸준히 견지하고 키워나간다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상경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체험하면서 법과 사법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법조인의 소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 제14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우승팀

**민사부문:** 연세대(김은수, 신연규, 장유진)

**형사부문:** 고려대(곽동민, 김민주, 최일윤)



민사부문 우승팀(연세대) 왼쪽부터 신연규, 김은수, 장유진



형사부문 우승팀(고려대) 왼쪽부터 최일윤, 김민주, 곽동민

**Q. 수상 소감을 이야기해주세요!**

**민사팀:** 가인 대회에서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라 대회가 끝났음에도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학기와 병행하면서 대회를 준비했던터라 많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 연세대학교 팀이 민사부문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선배님들의 업적을 저희가 이어나가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팀:** 두 달 동안 동고동락한 팀원들에게 가장 감사함을 느낍니다.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자 받은 재미 삼아 나와 본 대회인데, 이렇게 좋은 성과까지 있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변호사 시험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인데, 이번 대회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는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 팀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사팀:** 저희 팀은 저(신연규)와 김은수, 장유진 원우가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연세대학교 법전원 2학년, 13기입니다. 유진이와는 1학년 때부터 같은 스터디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이였습니다. 저와 유진이 모두 가인대회 출전에 관심이 있어서 먼저 의

기투하게 되었고, 이후에 저희가 은수형에게 같이 준비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은수형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팀:** 저희 팀은 고려대 로스쿨 13기(2021학번) 세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는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 CLEC 활동을 통한 인연으로 지난 여름 방학 중 다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팀을 꾸렸으나, 실무수습 등 다른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해당 대회에는 결국 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졸업 전에 로스쿨 시기를 추억할 만한 경험 하나를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민사팀:** 아무래도 학기 일정과 병행하여 대회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본선 서면 제출 마감기한이 저희 학교 기말시험 마지막 날과 정확하게 겹치면서 온전히 서면 작성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차기 대회부터는 대회 일정과 학교 학사 일정 사이에 조율이 되어서 최소한 하루 이틀이라도 서면에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시면, 대회를 준비하는 원우님들이 보다 원활히 대회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형사팀:** 학교 수업에서는 대체로 답이 있는 문제들을 배우는 반면, 실제 법률 사안은 답이 없을 때도 있고 사실관계를 더 자세히 판단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회 역시 그런 ‘답이 없는’ 사안이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쟁점 상당수가 판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하급심 판례가 있는 쟁점조차도 각 판례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라 아직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실무 경험이 없는 저희가 보기에 막막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Q. 예선(서면심사)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민사팀:** 원피고간 견해 차이가 생기는 쟁점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를 풍부하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쟁점에 일방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더라도, 헌법이나 학설상 논리등에 기반하여 여러 방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관련 서적, 주석서, 논문 등을 통해 기초적인 리서치를 하고,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팀:** 예선에서는 오로지 서면 평가로만 본선 진출 팀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보다 서면 작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사안과 관련되는 대법원·하급심 판례는 물론이고 논문이나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까지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주장, 반박, 그에 대한 재반박까지 모두 담은 정치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요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역할 분담을 잘 하는 것이 각별히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Q. 본·결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또 변론에서 증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민사팀:** 본선도 준비서면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선과 준비과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본선 문제의 경우,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률관계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쟁점이 있었는데,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검토해서 논리에 흠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선은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추가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당 쟁점에 대해 각자 배정받은 지위에 따라서 유리한 주장, 논거들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

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민사법적 지식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 민사법을 꾸준히 공부하였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변론은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3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면과 연동해서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면에서 구성한 구조가 변론에서도 가능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팀:** 본선에는 예선과 달리 서면과 변론의 비중이 비등해지며, 결선에 이르면 변론의 비중이 서면의 비중을 압도하게 됩니다. 저희는 본선 경연장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서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점을 경연장에서 몸소 느꼈습니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준비한 자료를 단순히 읽기만 하는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실제 변론에 임한다는 자세로 재판장님, 그리고 상대방 팀원들과 아이 컨택(eye contact)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Q. 우승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민사팀:** 저희가 생각하는 우승의 요인은 문제의 의도와 쟁점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론 자체는 준비가 부족해서 다른 팀에 비해서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본선 및 결선 문제에서 그 출제 의도를 상대적으로 잘 파악하였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배정받은 지위에 유리하도록 주장을 잘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 팀이 가진 강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팀:** 팀원 서로 간의 능력이나 특징에 있어 균형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결선 준비에는 단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서로 역할 분배를 잘 해서인지 각자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고 결선 변론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Q. 제15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세요!**

**민사팀:** 가인 법정변론 대회는 학교 및 변호사시험 문제와는 달리,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법적 분쟁에 대해서 각자 부여받은 역할에 유리하게 주장을 구성하고 논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논증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지만, 판례가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판례를 반박하는 논거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수동적으로 외우기 보다는, 해당 쟁점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에 중점을 두고 민사법 분야를 공부를 해나간다면, 정답이 없는 가인 대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사팀:** 로스쿨 진학 후 단편적인 글만 써 오다가, 대회를 준비하며 ‘주장-반론-재반박’의 구조를 갖춘 깊은 글을 작성해볼 수 있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법 또는 민사법을 공부하면서 흥미를 느낀 후배님들이라면 누구든 후회 없을 경험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대회에 참여하게 되신다면, 단순히 자신이 생각한 근거들만으로 서면을 쓰는 것보다는 해당 근거에 대해 어떤 반박이 나올지, 그에 대하여 어떻게 재반박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며 서면을 구성해 나가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 A W SCHOOL **창**

**표지 사진 공모**



• **응모 자격:**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교직원(교수/직원)

• **공모 주제:** <로스쿨 창> 표지

- 로스쿨과 관련된 사람, 캠퍼스, 풍경, 건물, 이벤트 등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음.
- 다양한 로스쿨 일상을 담은 캠퍼스 라이프 사진

• **마감 기한:** 상시 모집

• **제출 방법:** 이메일(showe@leet.or.kr)

-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함께 제출 (신청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내 게시)
- 제출 파일은 ‘제출자의 성명\_작품명’으로 작성

• **출품 규격**

- 파일 크기: 5MB(3200×2200픽셀) 이상
- 파일확장자: jpg, jpeg, png, gif 형태의 디지털 사진

• **선정작 시상:** 30만 원(1작품)

• **문의처:** <로스쿨 창> 담당자(02-752-2037, showe@leet.or.kr)

• **결과 발표:** 개별 연락

• **유의 사항**

- 출품 사진은 응모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모든 응모작품은 제3자의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출품자에게 있음.
- 선정작의 저작권 전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영구 귀속되며, 이후 필요에 따라 2차 저작물 작성 및 편집 저작물 제작 권리, 제3자 제공, 인터넷 서비스 등 포괄적 이용 권한을 가짐.
- 세부 심사기준 및 과정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되지 않은 모든 제출 자료는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 예정임.



# 로스쿨 학생들의 최애 어플 To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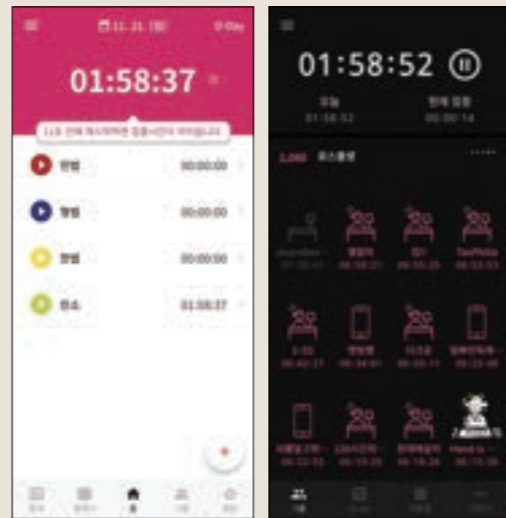
하루 24시간을 나노 단위로 쪼개 쓰는 로스쿨생들의 핸드폰에는  
뭔가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누구보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로스쿨 학생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 열정을 품은 다이어(열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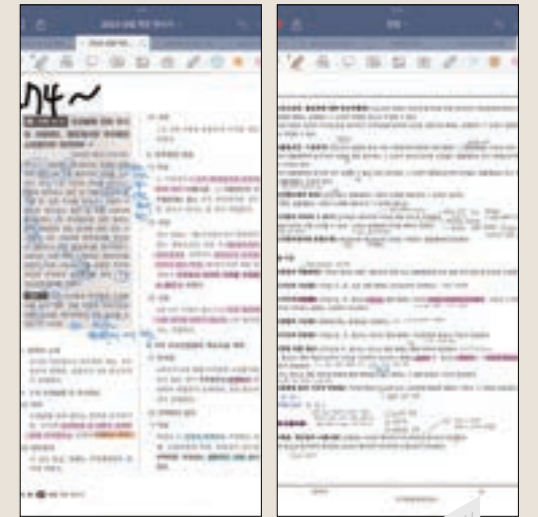
일정 시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공부 시간을 체크해주는 어플로, 상당수의 로스쿨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하루, 1주, 1달에 자신이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기들이 오늘 얼마나 공부했는지, 지금 공부 중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 미리 등록된 그룹이 아니라도 '로스쿨생' 카테고리에 등록된 사용자들의 공부 양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공부 양과 한눈에 비교도 가능합니다. 공부 타이머가 돌아가는 중에는 허용된 앱(미리 등록해야함)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을 줄이고 공부에 집중하기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뽀모도로 방식 타이머, 백색소음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 굿노트(Good Note)

로스쿨생의 대표적인 필기 어플, 굿노트를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변호사시험 준비를 시작하기 전까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함은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들의 각종 강의안, 보충자료, 내가 만든 요약본(일명 찌라시), 친구들이 만들어준 찌라시 등 한 학기에 만 프린트 해야 할 양이 상당한데요. 거기다 외부 교수님들의 특강자료 까지 있습니다. 수업 때마다 복사실에 들르거나 집에서 프린트해 가려면 번거롭고 복잡한 것을 굿노트 어플이 명쾌하게 해결해 줍니다. 아이패드에서 바로 PDF 파일을 받으면 굿노트 어플에서 각종 색색깔로 필기하고 하이라이트할 수 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법학 공부의 핵심인 '회독'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집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바, 문제집 PDF 파일을 만들어 아이패드에 넣어두면 끝! 한 번 풀고 난 흔적을 말끔하게 지울 수 있으므로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그것도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풀 수 있습니다. 법전보다 더 많이 열어보는 굿노트 어플을 강추합니다. (경북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 LAWnB Plus

로스쿨에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판례 기반으로 출제되니,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그리고 자주 찾아서 읽으라고 하시는데요. 이에 열정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교과서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 읽다보면 해당 정보만 가지고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로앤비 플러스' 어플을 이용하면 대법원 판례 원문을 읽으며 사실관계에 의문이 들 때는 원심판결을, 감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평가와 같은 전문적인 의견이 궁금할 때는 평석 논문 등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따름 판례라고 하여 해당 판결 이후의 대법원 판례도 제공하니 '로앤비 플러스'의 콘텐츠의 양과 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많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학구열에 불탈 때 '로앤비 플러스'는 무엇보다 든든하고 편리한 백과사전입니다. (동아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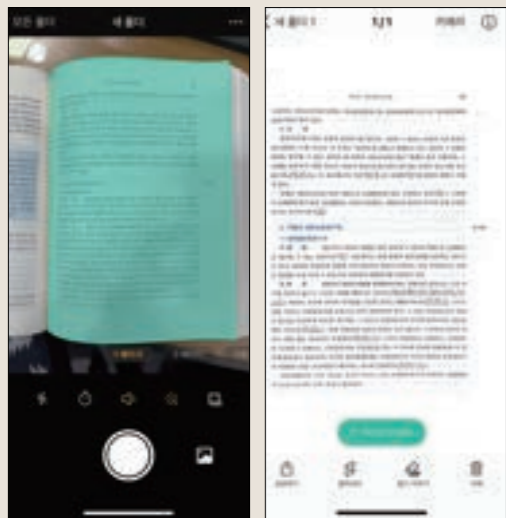
### 타임스탬프(Time Stamp)

로스쿨생들은 출석 체크 스티디를 많이 하는데요. 이 어플은 사진을 찍을 때 현재 시각이 화면에 자동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출석 인증을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티디원끼리 오전 9시까지 학교 출석 인증을 약속했다면, 사진과 같이 제시간에 출석하여 어플을 작동시키면 됩니다. 일반 사진 어플 작동방식과 동일하게, 어플에서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시간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단순한 동작만으로 현재 있는 위치와 시간을 인증 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 vFlat scan

vFlat은 터치 한 번으로 책, 문서, 메모 등 핸드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고화질 PDF 또는 JPG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스캐닝 앱입니다. 스캔 할 문서나 책이 많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어플입니다. 어플을 작동 시키고 스캔할 문서나 책 페이지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면, 페이지의 테두리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잘라주고요. 어느 각도에서나 깔끔한 스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캔한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데, 그 내용을 복사해서 동기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구요. 또 스캔하기 위해 책 사진을 찍으면 책의 곡면이 나오기 마련인데, 곡면을 자동으로 보정하고 촬영 시 찍힌 손가락을 지워주는 기능까지 있는 등 디테일이 돋보이는 무료 앱입니다! (전북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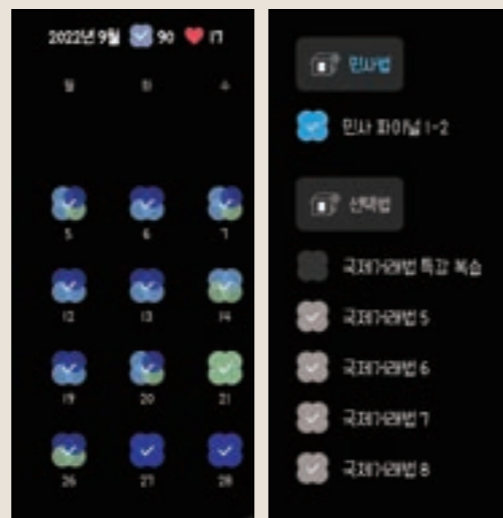
### 국가법전

시험 기간에는 종이 법전을 자주 보면서 눈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카페 등 외부에서 공부하는 경우 법전을 들고 다니려면 무겁고 번거롭습니다. 주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국가법전 어플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조문(제○조) 부분만 클릭해도 복사가 가능해서 다른 필기 어플에 텍스트를 옮겨서 정리할 때 편리함 ② 여러 법전을 한꺼번에 탭에 넣어두고 변경하면서 보기에 편리함(이게 최대 장점 같습니다) ③ 법 개정시 바로 업데이트 알림이 온다는 점 ④ 레이아웃이 깔끔하다는 점 ⑤ 판례검색도 가능하다는 점(이건 다른 어플도 되는 점 같기는 합니다)이 좋아서 필기 정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어플입니다. (아주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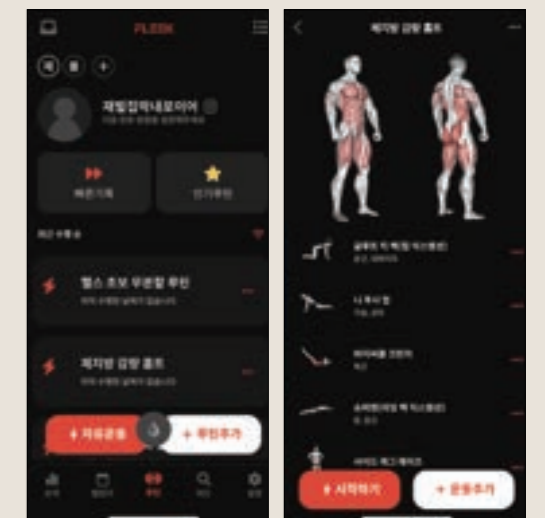
### 투두메이트(Todo Mate)

Todo Mate 어플은 오늘의 할 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케줄 어플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라벨링이 쉽다는 점입니다. 공부할 과목이 많은 로스쿨 특성상, 진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대분류 제목을 붙여두고 그 밑에 할 일 목록을 적어두는 식으로 관리하면 매일 과목별로 해야 할 일과 진도 등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목별로 원하는 색을 지정할 수 있어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월별 달력에서는 진도나 현재 공부 상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 플릭(Fleek)

로스쿨 학생들에게 공부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체력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3년간 치치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는 운동을 꼭 해야 하는데요. 플릭이라는 어플은 운동 현황을 기록하는 어플입니다. 본인의 운동 루틴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요. 유명 유튜버들의 운동 루틴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은 물론, 어떤 운동이 어느 부위에 자극이 가는지 보여주기에 혼자서 운동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어플입니다. 무게 기록, 휴식 시간 기록 등도 가능하며, 일간차트를 통해 본인이 오늘 어느 부위(?)를 집중적으로 했는지, 피로도도 어떨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 안드로이드에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 어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운동합시다! (영남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나만의 이야기와 가치” 담고 있는 인재 주목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계 채용연계형 인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로고스 소속 첫 대표 변호사인 임형민 변호사(56·사법연수원 25기)는 6년간 로고스의 채용을 담당하며 로고스와 신입 법조인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왔다. 그를 만나 로고스의 인턴 및 채용 과정 전반을 자세히 들어보았다.



**Q. 하계/동계 인턴 과정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로고스는 로스쿨 2학년 대상 하계·동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최근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축소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정상화하여 하계·동계 인턴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인턴들은 2주간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동계 인턴 프로그램만은 1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15명 내외의 2학년 재학생을 선발하며, 하계·동계 인턴 프로그램 모두 채용전제형으로 운영됩니다.

**Q. 인턴 선발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면접을 보기도 했으나 여건상 어려워지면서 자기소개서의 심사 비중이 더욱 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성적이 아주 나쁘지 않은 이상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로스쿨 학생들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로스쿨 간 학생들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학업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출신 로스쿨에 상관없이 인턴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전문 자격사나 경력이 있는 경우,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와 연계하여 잘 풀어낸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Q. 자기소개서 작성 팀이 있다면?**

‘나’를 잘 표현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환경에서 성적을 잘 받았다는 내용은 눈에 띄는 지원서는 아닙니다. 한 번은 이력서의 취미란에 ‘한약 배달’이라고 작성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경력에 비하여 사소한 취미임에도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풀어나가며 학생의 됴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판결문 형식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형식을 보고 장난인가 싶었지만,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잘 쓴 자기소개서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을 권합니다. 사소한 소재라 할지라도 그것이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Q. ‘기독교로펌’인 만큼 종교를 어필하면 가점이 있나요?**

로고스의 이력서에는 종교를 표시하는 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소개서에 종교를 어필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종교가 있다’라거나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아닌 그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인턴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로고스의 인턴 과정을 통해서는 과제 수행 능력만큼이나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로고스의 인턴 프로그램은 로고스가 인턴이 어떤 사람인지, 반대로 인턴 입장에서는 로고스가 어떤 회사인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인턴 과정에서 로고스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로고스는 여느 로펌과 같은 민·형사, 자문, 송무 과제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주의 인턴 기간 중 인턴들은 소속 변호사와 함께 1박 2일 MT를 가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인턴과 변호사들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잘 알 수



인터뷰어. 조영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인터뷰이. 임형민  
법무법인[유] 로고스 경영대표변호사

있습니다. 또한, 공익활동을 위한 일정이 있습니다. 인턴들은 연탄 나르기 봉사나 “희망과 동행”을 통한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공익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외에도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로고스의 인턴 프로그램은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로고스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리는 한편, 로스쿨 재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인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의하여야 할 점과 채용되지 않은 경우 재지원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나치게 경쟁하는 모습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인턴 동기들을 경쟁자보다 함께하는 동료로 생각하며 인턴 과정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재미난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경쟁적으로 앞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가짐보다는 동료가 될 인턴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며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한편, 하계 인턴 후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라고 하여 동계 인턴 과정이나 이후의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 경력 법조인으로 입사 시 가점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Q. 로고스의 신입변호사들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나요?**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전 먼저 입사하여 회사에서 팀을 배정받게 됩니다.

팀 배정에 있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회사와 본인의 의사를 취합하여 팀 이동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종교를 가진 변호사는 채플에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익 활동으로 한부모가정 멘토멘티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어 공익 활동이 부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보전소송,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신입변호사를 대상으로 따로 교육 진행하여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학년 대상 하계·동계 인턴 과정 모두 채용전제형으로 운영 ...

각 15명 내외 선발

- 로스쿨 상관없이 ‘로고스의 가치와 맞고 끝까지 함께 할 인재’ 찾아

- 신입변호사 초봉 세전 월 750만 원 ...

저녁 식대, 야간 택시비, 헬스장 등 지원

**Q. 신입변호사의 급여 및 복지제도가 궁금합니다.**

신입변호사의 경우 세전 월 750만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수습 기간 6개월은 월 500만 원, 이후에는 월 700만 원입니다. 연봉계약이 12월에 있고 보통 50만 원씩 인상되므로 신입변호사 초봉은 세전 월 750만 원을 받습니다. (더하여, 임변호사는 신입변호사 초봉 인상에 대하여 논의 중이며 인상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로는 저녁 식대, 야간 택시비 제공 및 건물 내 헬스장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파트너 변호사 비율, 유학 기회, 워라밸 등이 궁금합니다.**

일반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의 비율은 1.5:1 정도입니다. 신입 변호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6년 근무 후 7년차 때 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관 출신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워라밸”은 로고스가 자랑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로고스의 변호사들은 워라벨을 충분히 보장받으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로펌에 비하여 야근이 많지 않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Q. 임형민 변호사님이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올 2023년부터 경영전담 대표변호사가 되



었습니다. 그 전에는 회사 리크루팅 담당, 중국 팀장, 교회 센터, 가사 상속 등을 담당해 왔습니다. 리크루팅을 담당하면서 인턴들과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해왔습니다. 특히 인턴들과 MT를 갔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탄 봉사, 민영교도소 방문 등 공익 활동도 인턴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다만 기관이랑 기간이 항상 맞지는 않아 매년 참여한 건 아니었는데, 인턴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로고스에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인턴들이 로고스의 가치를 체험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예비 법조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단선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

니다. 법조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학점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삶의 모티브가 될 것입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최종 도착지가 판·검사인 것만은 아닙니다. 로스쿨 재학기간동안 법학도로서 일정한 진로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젊은 변호사들에게, ‘전문성’이란 대단한 것이 아닌 나에 대한 평가들이 모여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나에 대한 평가들은 자신의 작은 행동들에서 비롯합니다. 후배 법조인들이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변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



## 호문혁 교수

現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前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前 제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금년도 변호사시험 응시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로스쿨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법학을 접하여 그 어렵고 복잡한 법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법학은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내용도 복잡한데, 최종 관문인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곳곳이 이를 극복하고 마침내 변호사시험까지 마쳤습니다.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추어 출범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여러분이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교육을 통한 양성이니까 로스쿨에서 죽어라 법을 공부하고 졸업했으면 변호사 자격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 합격률 50% 언저리의 시험을 통한 선발로 되돌아간 것 아닌가? 각 로스쿨마다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보고 내 법조인 생활의 방향을 잡고 입학했는데, 변호사시험 준비에 매몰되고 말았네... 로스쿨에서는 법적 사고(legal mind)를 기르는 교육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판례 수천 개를 외워야 변호사시험에 붙을 수 있다니, 찾으면 다 나오는 판례를 왜 외워야 한단 말인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5번만 주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왜 5년이라는 기한을 두었는가? 내가 아파서 응시를 못하면 기회가 4번으로 줄어드는데... 무슨 로스쿨 제도가 이 모양일까?

그런 고민과 갈등도 이제 여러분에게는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지나간 일이 될 터이니 이제 새로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을 내디딜 땅은 아무데로나 갈 수 있는 드넓은 대지입니다. 여러분은 선로를 벗어나면 큰일나는 기차가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법조인들이 기차처럼 길이 있는 곳에 뜻을 두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만드세요. 어디로 가는 길을 만들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고민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 머릿속에 법학도가 갈 길은 사법시험을 봐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이미 기업에서는 사법시험과 무관한 법대 졸업생이라도, 나이가 좀 많아도 데려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업에서는 그들의 법률지식보다는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구소송물론과 신소송물론 등 얼핏 보면 법학자들의 별로 쓸모도 없는 논쟁에 휘말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논리적 사고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능력이 바로 기업에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로스쿨에서 배출한

변호사 자격자가 기업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업에 가서 꼭 변호사 자격증을 달고 법무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법무부서에 들어가면 당장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게지만, 그 보다는 - 변호사 자격증은 장롱에 넣어두고 - 일반 사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촌 곳곳을 훑고 다니며 여러분의 지적·논리적 사고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꼭 대기업만이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도 여러분의 능력 발휘에 적합한 곳이 많습니다. 창업도 좋지요. 변호사 자격증은 나중에 퇴직한 뒤에 꺼내면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행정부 각 부처에도 여러분이 할 일이 널려 있습니다. 본래 행정은 법치행정 아니던가요? 더구나 오늘날 대부분의 입법은 정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법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행정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법조인이 행정부에 많이 진출해야 법치행정과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로스쿨 입학하기 전에 했던 전공 분야의 정부 부처에 진출하면 금상첨화 아닐까요? 그 소중한 대학시절 4년을 무의미하게 버려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은 언론계에도 진출해야 합니다. 법의 상징이 저울인 것은 다 알고 있겠지요. 언론의 취재와 보도는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권위 있는 언론의 기사를 읽으면 뭔가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느낌을 받더군요. 법학을 공부하듯이,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취재하고, 그 원인과 문제점, 파급력 등을 균형 있게 파악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 높은 언론기관을 우리도 보유하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밝고 맑아질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며 사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좀 더 큰 꿈☆를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도 큰 보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UN과 그 산하의 국제기구,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기구,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 세계인의 건강이나 복지를 돌보는 기구 등 수 없이 많은 기구가 있지요. 이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반쪽에 갇혀 사는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구촌 곳곳에 우리의 힘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률가들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인식하는 법조인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학계에도 진출해야 합니다. 법학이 발전해야 법조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재가 많이 모여야 합니다. 학자 누군가가 논문 한 편 쓰면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풍토가 생긴다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 학계가 시끌벅적하면, 학자들이 외국법에 관한 깊은 연구로 우리 법의 해석과 입법에 이바지하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비록 소크라테스처럼 배는 좀 덜 부르지만 영재를 가르치는 즐거움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갈고닦은 법적·논리적 사고력은 이 세상 어느 분야, 어느 곳에서도 쓸모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촌 어디서라도 그러한 사고력이 높ی 평가받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여러분이 스스로 기차길에 올라앉아서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응시생 모두의 영예로운 합격을 기원합니다!

다	함	께							
‘	알	기	쉬	운	법	령	’		
만	들	기							



박준석

現 프리랜서 기고가

나라의 근간이 문화이고, 그 문화를 지탱하는 게 언어라는 말처럼, 법조계에서 사용되는 언어 또한 한국의 법률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법제처에서 시행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뭇 깊이 있는 역할을 맡은 것 같다. 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이해하기 힘든 일본식 한자어 등이 쓰인 법령을 사전에 고치고, 기존 법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가 되도록 정비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2006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법령이 일본식 한자어나 난해한 용어 등으로 넘친다면, 이는 일제강점기의 잔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2019년까지 법령에 사용되는 어휘 중 재검토가 필요한 것만 4,400여 건에 달한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어렵게만 느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법제처의 정비 권고 용어 중 하나인 ‘모사전송(模寫電送)’은 사자성어도 아니고 일본식 한자어로서 ‘팩스(fax)’를 의미할 뿐이다. 팩스란 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 되레 모사전송이라는 생소한 어휘가 법조계에 널리 쓰인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다.

민법 용어인 ‘상린자(相隣者)’, ‘몽리자(蒙利者)’ 등도 법제처의 정비 권고 용어에 속한다. 즉 법제처에서는 상린자(相隣者)를 ‘서로 이웃하는 자(사람)’로, 몽리자(蒙利者)를 ‘이용자,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바꿔 쓸 것을 권고한다. 그런데 각 한자어의 훈음만 알아도 이러한 정비 용어를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상린자(相隣者)의 린(隣)은 훈음이 ‘이웃 린’이다. 말하자면 상린자(相隣者)는 한자 훈음으로 직역했을 때 ‘서로 이웃 되는 사람’일 뿐이다. 몽리자(蒙利者)의 몽(蒙)은 ‘어리석다’라는 뜻과 ‘받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받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몽리자(蒙利者)는 ‘이익을 받는 사람’일 뿐이다.

솔직히 이러한 법조계의 용어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하게 만든다. 혹시 법령에 의도적으로 일본식 한자어나 한자를 과용함으로써 소수의 전문가나 공무원만 법령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건 아닐까? 이에 더해 일선동조, 황국신민 등을 앞세운 일제의 만행은 아니었을까? 실제로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은 학교에서의 조선말 사용을 금지했고, 1943년 제4차 조선 교육령은 조선어 과목 자체를 삭제했다. 마찬가지로 광복 후 공포된 법령도 그러한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았을 것이다.

일본어와 중국어는 수백 개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지만, 한글은 수천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언어를 쓰는 목표가 소통일 텐데, 이렇게 우수한 우리말을 법령 용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이는 세종대왕 시절 관료였던 ‘최만리’가 한글을 오랑캐글 또는 여자들이나 쓰는 암글이라며 비하했던 역사에 견줄 수 있다. 요즘 같으면 천인공노할 발상이 아닐까?

물론 많은 사람이 당장 수천 개에 달하는 정비 권고 법령 용어를 수용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 권고 용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쓰일 때까지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름답고 매끄러운 언어가 점점 더 사용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최소한 관공서 직원들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나,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국가 고시 등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수험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자연스럽게 더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국민 누구나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용어를 제안할 수 있다.

필자가 더 알아본 바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공서 양속’이라는 표현을 상표법 제7조 제1항에서 ‘공서양속(公序良俗)’으로 붙여 쓰고 있다. 그런데 이 공서 양속을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이라고 사전에 고쳐 썼다면 얼마나 이해하기 쉬웠을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민법에만 등장하는 ‘표의자(表意者)’도 마찬가지다. 표의자(表意者)는 겉으로(겉 표) 뜻을 표현하는(뜻 의), ‘의사 표시자’일 뿐이다. 법령에 표의자라고 나와 있으니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령이라면, 아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의거하자면, 이는 한낱 변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대한변호사협회는 감사원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충원제가 위법부당하다며 교육부와 25개 로스쿨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권익위에 로스쿨 결원충원제 폐지 진정을 넣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서 전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회장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로스쿨 흔들기가 시작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 축소, 법학전문대학원(이하‘로스쿨’) 통폐합 및 결원충원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감사청구와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그 방법도 다양 각색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당선을 위해 로스쿨 흔들기에 앞장서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선거철마다 로스쿨 흔들기에 나서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 로스쿨 출범 당시 교육부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로스쿨법을 근거로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25개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변호사시험으로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 또한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로스쿨 총정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 최근 5년간의 총 입학정원 10,000명 중 162명 미충원(1.62%) 발생

■ 그러나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마치 로스쿨이 사회의 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1)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 축소, 2)결원충원제 폐지, 로스쿨 통폐합 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 ※ 1) 제1회부터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27,580명 대비 합격자는 16,049명(58.19%)인데, 의사국가시험 합격률은 95.75%(2022년)로 매우 높음.
- 2) 2022년 로스쿨 결원 181명, 충원 142명, 미충원 39명(21.5%) 수준으로 매우 심각

■ 이러한 주장과 소모적인 논쟁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레퍼토리의 하나로, 이는 힘없는 로스쿨을 상대로 폭거를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임에도 합격률은 제1회 87.15%에서 제11회 53.6%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합격선 점수가 제1회 720.46점에서 제11회 896.8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공약을 앞세워 로스쿨을 흔드는 법조인 중에는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도 있으며, 자신이 변호사 자격증을 손에 쥔 때보다 자격증 취득이 훨씬 어려워졌음을 알고 있음에도 무차별적으로 후배 죽이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 법조단체와 법조인들이 로스쿨의 안착·지원과 교육의 질 개선에 힘쓰기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을 요구하는 등의 지속적인 흠집내기를 하여‘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의미는 퇴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근간이 되는 ‘교육’조차 파행될 위기에 이르렀다.

■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치를 지키며,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들 단체의 사명이라 할 것이다. 특히 회원 변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법조직역 통폐합에 앞장서야 하나, 이들은 그조차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채 오직 로스쿨 흔들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 특히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면서도, 유사 직역에서 요구하는 소송 대리권을 논의할 때는 법전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기성 법조인들의 모습에 후배 로스쿨생 또는 로스쿨 입학 준비생들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선거철 공약으로 로스쿨과 로스쿨 재학생 흔들기에 치중하는 후보자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자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12.3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상경

#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

##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 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합격률 2% 사법시험에 의한 법률귀족, 개천룡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접근성 높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 도입  
나이가 수험에만 머물던 고시촌 수험생이 아닌 다양한 경력·전공자에 의한 전문화·국제화된 양질의 법률전문가 양성 목적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따라서 로스쿨 졸업생들이 보게 되는 변호사시험은 그 본질 자체가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

### 2 로스쿨 제도

#### 로스쿨 입학정원

25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함(로스쿨법 제7조) → 2,000명

#### 로스쿨 교육의 질 관리

교육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 법학교육위원회 설치인가/행정점검	- 로스쿨평가위원회 로스쿨 인증 평가	- 변호사관리위원회 변시 합격자 결정

#### 로스쿨 제도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과정

법학박성시험 → 로스쿨 입학 → 법조윤리시험 → 합격한 상대평가/종합시험(오의시험 연 3회) → 변호사시험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따라,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심의)

### 3 로스쿨 입학전형·엄정한 학사관리·학비부담 경감지원책

#### 입학전형시 범으로 다양성 보장

비법학사	타고출신	취약계층	지역인재
1/3 이상	1/3 이상	7% 이상	5~15%

#### 엄정한 입학전형

법조인으로서 차해야 할 기본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측정하는 시험 실시  
법학적성시험(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성적과 학부성적, 공인외국어 능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정량평가(OJBT, 학점, 외국어)·요소별 실질면담 및 판단방법 공개  
\*정성평가(서류, 면접)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하여 시행 중

#### 치열하고 공정한 선발, 엄정한 학사관리 및 졸업 절차

법학박성시험: '22학년도 14,620명 지원, 13,933명 응시  
공정한 입학전형: 입학정원 2,000명, 로스쿨 현제합수 경쟁률 5.221  
엄정한 학사관리: '16~'25 학사결과 1,490명, 유급 389명  
법조윤리시험: '22년 합격률 96.10%, 2,039명 중 1,957명 불합격  
합격한 종합시험: 변호사시험 오의시험 연 3회 및 자체 졸업시험 실시  
변호사시험: 기존 변시 합격자수, 합격률, 로스쿨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등 종합적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다양한 직업전송: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

#### 학비부담 경감 및 장학금 지원 확대

\*국공립대(10개교) 등록금 동결, 사립대 등록금 13% 인하  
\*국고 장학금 확대: '16년 37억 원 → '22년 65.9억 원  
\*돈돈한 장학금 지원: 295억원 - 학교부담 229억원(77.6%), 정부지원 65.9억원(22.4%)  
→ 각 로스쿨은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 장학금 편성하고, 그 중 취약계층 장학금 70% 이상 지원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 〈소특구간별 장학금 지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1구간	소득 2구간	소득 3구간	소득 4구간	소득 5구간	소득 6구간
등록금 100% 이상	생활장학금 1배 전액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 4 교육을 통한 국가시험의 합격률 비교

다른 교육 양성제도의 국가시험들은 합격률 90% 이상인 자격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음, 오로지 법조인양성제도인 로스쿨에서의 변호사시험만이 합격률 50% 정도에 그치고 있음

〈교육을 통한 양성제도인 시험들의 합격률(2022년 기준)〉

구분	응시자수	합격인원	합격률	비고
한의사 국가시험	753	731	97.08%	한의대 현역전
간호사 국가시험	24,175	23,382	96.64%	간호대
역사 국가시험	6,043	5,780	95.75%	과대, 과전
역사 국가시험	1,903	1,840	92.32%	과대
치과 의사 국가시험	767	708	92.31%	과대, 치전
변호사시험	3,197	1,712	53.55%	로스쿨

40% 차이

97.08, 96.64, 95.75, 92.32, 92.31, 53.35

한의사, 간호사, 의사, 역사, 치과 의사, 변호사시험

\*한국 로스쿨 제도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  
미국 로스쿨은 자격시험화가 정착되어 변협(ABA) 승인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Bar exam)의 합격률이 한국보다 높음

[참고] '21년 미국변협(ABA) 승인 로스쿨 출신자들이 1,500명 이상 응시한 주요주들의 변호사시험(Bar exam) 합격률

주명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New York	2,264	5,511	74.84%
Massachusetts	1,666	1,209	72.48%
Washington DC	2,654	1,867	70.35%
Texas	4,056	2,793	68.85%
Pennsylvania	1,718	1,110	64.61%
California	5,940	3,822	64.34%
Illinois	2,546	1,586	62.29%
Georgia	1,564	928	59.34%
Florida	4,464	2,495	55.89%
New Jersey	1,736	919	52.97%
총계	33,708	22,240	65.98%

#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5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 취지 퇴색

### ■ 변호사시험 합격률 추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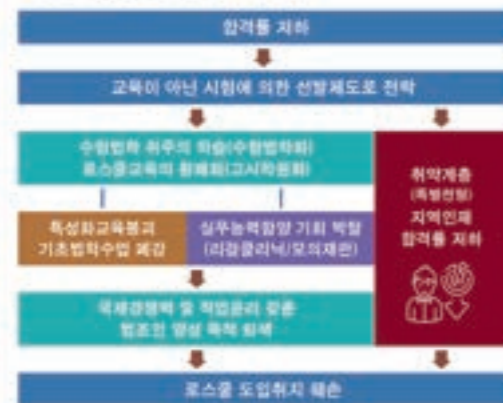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응시자	1,865	2,040	2,282	2,561	2,804	3,110	3,240	3,300	3,376	3,736	3,187
합격자	1,451	1,536	1,500	1,565	1,581	1,600	1,589	1,681	1,768	1,700	1,712
합격률	57.15	57.17	57.63	58.11	56.20	51.48	49.35	50.78	53.32	54.00	53.55

### → 합격률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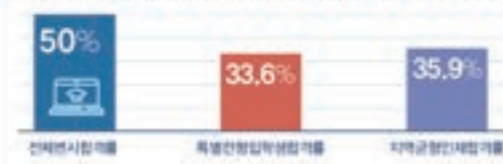
제1회 변시	제11회 변시
57.15%	53.55%

※ 사실상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 아닌 선별시험으로 운영, 통제

### ■ 변호사시험 합격률 급락의 문제



### → 로스쿨 정책의 취지 퇴색 : 취약계층, 지방인재 변시 합격률 저하



- 특별전형 입학생(87%)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33.6%에 불과  
- 지역균형인재 입학생(87%)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35.9%에 불과  
- 오합지졸 증

## 6 왜 변협은 변호사 수 감축을 주장하는가?

### → 기존 회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목적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은 구실일 뿐,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후배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를 저지하고자 함. 변협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음.

① 변호사시장이 포화상태다  
→ 법조인양성제도 유사한 일본보다 한국이 변호사가 많다

### ※ 변협 주장에 대한 반박

#### ① 변호사시장이 포화상태다?

- 변호사의 공급은 증가했으나, 그만큼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고 수요가 창출되었음.



#### ② 유사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보다 한국이 변호사가 많다?

1) 아래처럼 한국은 설치기준 등이 엄격하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으므로 다름

구분	일본	한국
설치기준	준칙수의	인가주의
교육시설기준	보통	엄격
설치학교	35개	25개
입학정원	자유	통제
법학부	존치	폐지
배치시험	있음	없음

2) 한국이 인구는 적지만, 소송사건이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 1만 명당 법조인 수에 비해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오히려 부족

구분(단위: 명, 개)	일본	한국
인구(2022 기준)	12,534만명	5,162만명
법조인 수	44,805	31,974
변호사 수	40,066	25,383
인구 1만명당 법조인 수	3.52	6.20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	3.15	5.01
소송사건수	3,380,796	6,679,233
감형고소과발합수건수	10,426	512,533

일본변호사연합회 타나카(공) 사무총장 曰  
"일본은 소송사건 없어서 변호사 줄었다." - 2022. 8. 31 법원청 간담회 중

## 7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 합격률 제고를 통한 사법개혁 추진 목적 달성

-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
-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세계적 경쟁력과 다양성 갖춘 법조인 양성
- 21년 법률서비스 5억 5,410만 달러 무역적자(출처: 한국은행 국제 무역)

### ■ 자격시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최소 70% 이상 합격 필요

응시자 대비 합격률	구분	제12회 (2023)	제13회 (2024)	제14회 (2025)	제15회 (2026)	제16회 (2027)	제17회 (2028)
70% 합격	응시자	3,398	2,867	2,503	2,482	2,502	2,534
	합격자	2,323	1,867	1,752	1,727	1,751	1,774
80% 합격	응시자	3,398	2,352	2,267	2,222	2,267	2,320
	합격자	2,654	1,885	1,765	1,777	1,854	1,856
	불합격자	664	470	441	444	453	454

\* 23회(2025)~26회(2028) 변호사시험 출원자 수(2024년) 2년 평균 출원자 수 대비 응시자 비율

자격시험화되려면 응시자대비 70% 이상 선발해야 안정화된다.

(70% 합격인 경우, 응시자 및 합격자 수 추이) (단위: 명)



(80% 합격인 경우, 응시자 및 합격자 수 추이) (단위: 명)



→ 차회 변시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 70~80% 할 경우 현재의 응시자 적체를 해소가능함. 2027년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 적체 해소되어 현재 합격자 감점 안원으로도 자격시험화 가능.

## 로스쿨 교육 당사자들의 합격률 제고 요청의 목소리

(출처: 이수근 등,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20)

1. 변호사시험을 완전 자격시험화 할 경우에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한다면 귀하는 합격률이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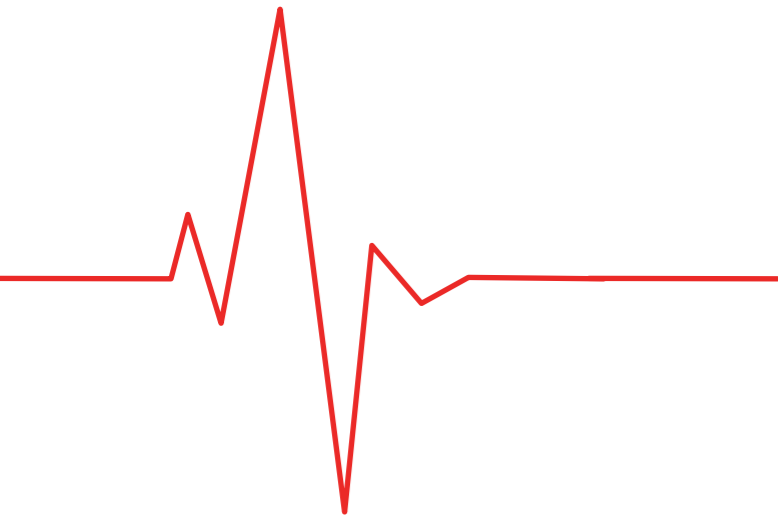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 요구비율)



2.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거나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법전문 설립취지, 법조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 70% 이상 보장해야함"



## CPR 방법과 교육의 중요성



공하성  
울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Kazan Federal University에서 소방방재분야 공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울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소방방재분야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1,000여 회 이상 언론, 방송에 출연하였으며, 현재 소방방재분야 8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생각지 못한 돌발사고와 질환 등에 의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 주위 사람의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인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로스쿨 교육에서도 CPR 방법을 숙지하여 사람을 살리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떤 원인에 의해 심장이 멈추고 약 4분 이상 뇌에 혈액이 보내지지 않으면 인간의 뇌는 산소 결핍으로 인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도 뇌 활동은 원상태로 회복하기 힘들다. 따라서 심장이 멈추면 최대한 빨리 인공호흡과 가슴압박에 의한 심장 마사지를 실시해야 한다. 인공호흡은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처치술이고, 가슴압박은 심장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처치술이다.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식 확인이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큰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말한 다음 반응을 살핀다. 이때 지나치게 자극하면 목뼈를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은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없거나,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으며 가끔 헛떡이는 비정상적 호흡이나 경련발작이 있기도 한다.

둘째, 구조요청이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경우 적당한 사람을 손으로 지명하되 그 사람의 특이점을 말한 뒤 도움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머리 짧고 흰옷 입으신 분, 여기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있어요.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심장충격기 찾아서 갖다주시겠어요?”라고 말하고 119에 신고하는 사람은 현재 위치, 환자 발생 상황, 필요한 구조대상자 수 등을 알려준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손으로 정확히 지명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정확히 지명해야 한다.

셋째, 자세 교정이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위해 평평하고 바닥이 단단한 곳에 바로 눕힌다. 외상환자는 머리와 몸을 동시에 움직여 주어야 경추가 손상되지 않는다.

넷째,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옷을 벗겨 가슴을 열고 양측 젖꼭지에 가상의 일직선을 그어 정중앙을 표시하고, 손바닥을 위치시킨다.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손 위에 오른손을 깎지 낀 상태로 왼손 손바닥의 아랫부분만이 눌러지도록 한다. 왼손잡이라면 반대로 오른손 위에 왼손을 깎지 낀 상태로 오른손 손바닥의 아랫부분만을 눌러지도록 해야 힘을 가하기가 용이하다. 가슴압박을 실시하는 사람의 팔은 눌린 환자와 수직이 되게 하고 팔꿈치는 펴서 두 팔이 구부



러지지 않도록 한다. 가슴압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안 이 자세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압박깊이는 5cm정도, 압박 속도는 1분에 100~120회 정도를 양쪽 어깨의 힘을 이용하여 30회 가슴을 압박한다. 그러니까 1초에 약 2회 정도는 빠르게 눌러주어야 효과가 높다. 가슴압박을 실시할 때는 하나, 둘, 셋과 같이 소리 내어 숫자를 세어가면서 해야지 횟수를 기억하기 좋고 압박 강도도 높이기 쉽다. 이와 같이 가슴을 압박하면 흉곽의 압력을 증가시켜 혈액을 신체의 각 조직으로 보낼 수 있다. 가슴압박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무척 힘든 일이므로 쉽게 지칠 수가 있어서 최소 2명 이상이 번갈아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슴압박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밖에 없고 그 대신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가 있다면 AED 사용과 가슴압박을 교대로 실시하면 심폐소생술의 효과도 높이고, AED사용 시 가슴압박 실시자가 잠시 쉴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어서 좋다.

다섯째, 기도개방이다.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손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오른손은

주먹을 살짝 권 듯한 자세로 턱에 대고 뒤로 젖히면서 부드럽게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준다. 왼손잡이인 경우 손의 위치를 서로 반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인공호흡이다. 기도개방을 유지하고 이마를 댄 손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옆으로 눌러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정도에 걸쳐서 입으로 숨을 불어 넣는다. 이때 눈으로는 환자의 가슴이 상승하는지 관찰한다. 1회 숨을 불어 넣은 뒤에는 입을 떼고 막은 코를 놓고 2회 숨을 불어 넣을 때 또다시 코를 막는 과정을 반복한다. 입으로 숨을 불어 넣을 때 코를 막지 않으면 불어넣은 숨이 코로 되돌아 나와서 효과가 없으므로 코를 잘 막아야 한다. 또한 1회 숨을 불어넣은 후 코를 놓는 이유는 환자에 불어넣은 숨이 코를 통해서 배출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조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 필요 없이 정상 시 정상 호흡량으로 2회 불어넣는다.

인공호흡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하기가 불편한 경우에는 인공호흡

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

일곱째,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무한반복이다. 119 구급대원 도착이나 자동심장충격기 도착 시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 비율로 무한 반복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시행하고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하며,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5주기(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5번) 정도를 시행한 후에 서로 역할을 교대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회복 자세이다. 가슴압박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환자가 호흡을 하는지 확인한다. 환자가 호흡을 스스로 한다면,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한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하고 다시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신속히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실시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 의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돕고자 행한 응급처치 등이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고 사상에 대한 부분도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시민들은 주저하거나 외면할 수 있다. 시민들이 CPR을 주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법에서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로스쿨에서도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 또, 로스쿨 교육에서도 CPR 교육과 실습 기회를 가져서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가슴 따뜻한 법조인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 변호사 유니버스 : 드라마 속 변호사.zip

바야흐로 법조 드라마 전성시대다.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드라마 속 변호사의 캐릭터는  
그 외향도 철학도 제각각이지만,  
소외된 약자들의 편에 서라는  
메시지만큼은 동일하다.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동시에 자폐스펙트럼이 있어 사회성이 부족한 주인공 우영우(박은빈).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해 법무법인 한바다의 인턴 변호사가 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 앞에서 당황하며 고군분투한다. 우영우는 사회성이 부족하고 감정표현에 서툴더라도, 선입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명대사** :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뿔별 역삼역 우영우”  
**킬링 포인트** :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선한 캐릭터가 많아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힐링물.  
**편성** : ENA(16부작) / **다시보기** : 넷플릭스

## 빈센조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 빈센조(송중기)가 베테랑 독종 변호사 홍차영(전여빈)과 함께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을 쓸어버리는 이야기다. 주인공을 마피아 변호사로 설정한 만큼 대한민국의 변호사와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불과 4화 방영만에 시청률 10%를 돌파했다. 악을 축출하기 위해 때로는 변칙적이고 독한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웰메이드 드라마.

**명대사** : “여기가 이탈리아였으면 너희는 지금쯤 아무도 모르게 포도밭 거름이 되었을 거야. 그리고 싸구려 와인이 돼서 어디선가 1+1로 판매되고 있겠지.”  
**킬링 포인트** : 송중기 얼굴  
**편성** : tvN(20부작) / **다시보기** : 티빙, 넷플릭스



## 천원짜리 변호사

화려한 선글라스에 유럽에서나 볼 법한 체크무늬 정장을 입은 남자. 매일 다마스를 타고 그가 향하는 곳은 바로 다방 사무실.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변호사다. 영국에 설록이 있다면 한국엔 천지훈(남궁민)이 있다는 치솟는 자신감 하나로 살아간다. 천 원짜리 한 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자신이라고 당당하게 외친다. 수업료는 단돈 천 원이지만, 실력은 단연 최고!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이 뺄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뺨이 돼주는 통쾌한 변호 활극!

**명대사** : “검사님이나 저나 스스로 진실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뿐이지.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킬링 포인트** : 패셔너블한 남궁민의 의상 #ootd  
**편성** : SBS(12부작) / **다시보기** : 웨이브



**왜 오수재인가**

완벽한 성공만을 향해 달려온 스타 변호사 오수재(서현진). ‘나쁜년’, ‘독한년’ 이라는 수식어를 늘 달고 다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바라던 성공이 눈앞에 있기 때문. 대표변호사로 임명되면서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서지만, 뜻밖의 사건에 휘말려 로스쿨 겸임교수로 발령받게 된다. 다시 돌아갈 명분과 더 큰 성공을 모색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로스쿨 신입생 공찬(황인엽)을 만난다.

**명대사** : “내가 믿어야 하는 건 네가 아니라 나야. 네가 네 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난 네가 무죄라고 믿어야 하니까. 그래야 내가 널 위해 움직이겠지. 변호사란 그런 거야.”

**킬링 포인트** : 서현진의 독종 연기와 달팽이관을 때리는 덕선

**편성** : SBS(16부작) / **다시보기** : 쿠팡플레이, 웨이브

**법대로 사랑하라**

대형로펌을 박차고 나와 한적한 주택가에 로(Law) 카페를 개업한 변호사 김유리(이세영). 그런데 하필 검찰청을 박차고 나와 백수로 사는 검사가 건물주란다. 추리닝과 몰아일체가 되어 낮잠을 때리거나, 자기 소유의 동네 건물을 순회하며 세입자들과 고스톱을 치는 것이 유일한 일상인 전직 검사 김정호(이승기)와 세입자 변호사의 유쾌 상쾌 법률 로(law)맨스.

**명대사** : “법이란, 가진 자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보듬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킬링 포인트** : 이보다 더 풍낭거릴 순 없다.

**편성** : KBS2(16부작) / **다시보기** : 쿠팡플레이, 웨이브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 외부 필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창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의견도 기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howe@leet.or.kr)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 취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과장 02)752-2037

#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음악을 전공한 변호사라는 다소 독특한 나의 이력은, 마치 물과 기름 같은 문화예술과 법, 그 둘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소명을 부여했다. 그러나 필자가 스스로 정한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라는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로스쿨에서 공부하던 10년 전쯤만 해도, 문화예술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했고 계약서가 낯설기만 한 문화예술계의 오랜 관행은 쉽사리 변할 것 같지 않았다. 때문에 법이 문화예술의 어떤 지점을 어떻게 서포트 해줄 수 있을지 막막했고, 당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역할은 주로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분쟁,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 사건 대리 등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필자가 실무자로 활동하는 수년 사이에 상황은 몰라보게 바뀌었다. 대중문화가 ‘산업’이 되었고, 물리적으로 넓은 동시에 우리 삶 속 깊숙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류로 시작된 K컬처 열풍은 막대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며 수익자가 필요없는 ‘BTS’ 효과를 내기에 이르렀고, 넷플릭스 등 OTT의 등장으로 날개를 달더니 ‘오징어 게임 신드롬’ 이후에는 이른바 흥행의 보증수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는 수많은 이용자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터’, 즉 저작권을 가진 창작자로 만들어주었고,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영상콘텐츠는 전에 없던 수익의 원천이 되고 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팬데믹은 오프라인에 실재하는 많은 것을 온라인상의 ‘콘텐츠’로 대체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에 불을 붙였고, 기술의 혁신과 맞물린 메타버스 공연, NFT 미술작품 등의 신문물은 더욱 큰 변화와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계약과 분쟁이 빈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급속한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생산과 소비가 활발한 콘텐츠 업계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저작권 침해, 수익분배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궁금증과 니즈가 몰라보게 높아졌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법률적 솔루션이 필요해졌다. 이제 문화예술법은 더 이상 일부 연예인의 송사 문제가 아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라이선스 계약 등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다양한 이슈를 풀어야 하는 컨설턴트와 해결사의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창작자들의 권리와 콘텐츠를 보호하는 지지대의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 것이다.



이렇듯 급속도로 변모하는 현 시점의 문화예술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고민하던 필자에게 감사하게도 대중문화 평론가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필자와 공저자는 최근 논란이 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 다소 온도가 다를 수 있는 ‘비평과 법률’의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고 분석을 해보기로 했다. 21가지의 이슈에 관해(부제처럼 수다를 떨 듯) 각자의 생각을 나눴는데, 이슈에 따라 의견이 같은 방향으로 모이기도 했고 때로는 인문학적 관점과 법학적 관점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하기도 했다.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각 이슈에 대해 먼저 비평가가 사회적, 미학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 뒤이어 필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답을 찾아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의 흥행’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비평가는 ‘OTT의 등장과 대중화는 중국 자본에 잠식될 위기에 처했던 우리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나, 해외 OTT에 지식재산권

이 귀속되는 것은 우리 콘텐츠의 본질과 성장을 방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OTT 이전부터 있어왔던 방송사 외주 계약의 불공정 문제 및 우리 영화의 제작 환경, 오징어 게임 제작 계약 체결 시 제작사와 넷플릭스 간 협상력의 차이’등을 짚어보고 그 해결로서 ‘OTT-제작사-창작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저작권법 및 관련 제도의 정비’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책에서는 위와 같이 매체 변화와 관련한 주제(OTT, 메타버스, 온라인 콘서트 등)뿐 아니라, 방송 콘텐츠 트렌드(로맨스형 예능, 트로트 프로그램 등), 현대미술 관련 이슈(NFT 미술작품 거래, 아티스티너 등), 각종 사회문제(악성댓글, 유튜브 주작영상, 음원사재기 등) 및 대중문화계의 사건 사고들(연예인 폭로, 소속계약 분쟁 등)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현 시점의 대중문화 전반을 조망하고자 했다.

즉, 급변하는 환경의 영향으로 변모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이슈 속에서, 그 의미를 짚고 과제를 던지며 법률적 답을 찾는 것이 다른 대중문화서와 구별되는 이 책의 특징이자 집필의 목적이다. 어느새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지 않는 일상을 상상하기 힘들 만큼 커져버린 대중문화의 영역, 그 속의 비평과 법률 이야기가 궁금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김민정 변호사

법무법인 휘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 고문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저작권 강사  
국립정동극장 이사

## 「법전문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검토 의견 제출



법전문대학원협의회는 10월 20일(목) 「법전문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결원충원제도는 부칙상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2010년부터 지금까지 2년~4년씩 부칙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어 왔다. 이에 법전문대학원협의회는 부칙 유효기간을 2년씩 연장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입학전형의 혼선을 야기한다는 점, 입시 준비생의 예측 가능성을 없애 혼란에 빠뜨린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견서에는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부칙 규정 자체를 삭제하거나 기한을 최소한 5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64차 총회 개최

11월 30일(수) 법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4차 총회가 열렸다. 제59차 이사회에서 구성된 법전문 성적평가 TF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징계에 관한 정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성적평가와 관련해서는 2022학년도 2학기는 ‘코로나 기간 동안의 학사관리 완화 방안’을 적용하고, 2023학년도 1학기부터는 새로 만든 공동의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의결되었다.

## 대한변협의 결원충원제도 국민감사청구서 제출에 대한 성명서 발표



11월 23일(수)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원충원제도를 허용한 로스쿨법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결원충원제도의 연장이 ‘학생들이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감사청구서의 제출 사유를 밝혔다. 이에 법전문대학원협의회는 결원충원제도의 순기능과 폐지 시의 부작용을 전하며, 대한변협이 결원충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변호사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60차 이사회 및 제65차 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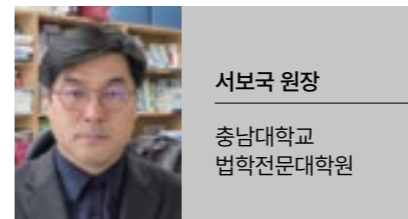
12월 8일(목) 강원도 오크밸리에서 법전문대학원협의회 제60차 이사회 및 제65차 총회가 개최됐다. 이상경 이사장 및 법전문 원장들은 법전문대학원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 법전문대학원 정관 개정, 2023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심의·의결하고 CBT 도입 등 법전문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 2023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영역회의 진행

법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12월 한달간 2023년도 제1차,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회의가 진행됐다. 영역회의에는 영역별 위원장과 출제위원, 간사들이 참여했으며, 시험의 출제 방향 및 출제위원별 출제범위 논의, 업무 분담 등이 이루어졌다. 출제위원들은 영역회의 이후 1월 중순까지 사전출제를 진행하고, 2023년 2월 14일부터 나흘간 합숙 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신입 원장 취임



서보국 원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원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23년 1월 1일 취임

##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안내

### I. 변경내용

#### 가. 2023년 이후 시행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경된 사항
제1차 시험 합격자 수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제2차 시험 합격자 수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 범위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 제1차 합격자 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응시생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제2차 합격자 수를 확대하여 면접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 나. 2025년 이후 시행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 1. 제1차 시험과목

직 렬	현 행	변경된 사항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공통	1.헌법, 2.민법, 3.형법, 4.영어, 5.한국사	1.헌법(절대평가), 2.언어논리영역, 3.자료해석영역, 4.상황판단영역, 5.영어, 6.한국사

◎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여 제1차 시험에서는 법원사무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헌법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응시생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 제2차 시험과목

직 렬	현 행	변경된 사항
법원사무직렬	1. 행정법 (20%) 2. 민법 [친족·상속법 제외] (20%) 3. 형법 (20%) 4. 민사소송법 (20%) 5. 형사소송법 (20%)	1. 행정법 (10%) 2. 민법(30%) 3. 형법 (20%) 4. 민사소송법 (20%) 5. 형사소송법 (20%)
등기사무직렬	1. 행정법 (20%) 2. 민법 [친족·상속법 제외] (20%) 3. 상법 [총론, 회사편] (20%) 4. 민사소송법 (20%) 5. 부동산등기법 (20%)	1. 행정법 (10%) 2. 민법 (30%) 3. 상법 [총론, 회사편] (20%) 4. 민사소송법 (20%) 5. 부동산등기법 (20%)

◎ 제2차 시험은 법원사무관에 필요한 실질적인 법학지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제1차 시험에서 민법이 폐지됨에 따라, 민법의 배점비율을 확대하고(30%) 친족·상속법을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

판례상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 ㄴ.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 ㄷ.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 ㄹ. 가산금 및 증가산금특촉처분과 징수처분
- ㅁ. 사업종류 변경결정처분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 ① ㄱ, ㄴ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 2

甲은 A를 주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반항하는 A의 가슴을 왼손으로 누르면서 A의 몸 위로 올라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甲의 따귀를 때리면서 완강하게 반항하여 甲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甲은 범행과정에서 A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검사는 甲을 강간치상(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A의 가슴을 왼손으로 누르는 등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A가 상해에 이르렀으므로, 甲에게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② 만약 A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甲에게 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
- ③ 법원은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甲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④ A에 대한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의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 ⑤ 만약 자수한 甲이 자수감경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자수감경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수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예금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할 때가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금융기관에 입금될 때 성립한다.
- ② 예금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인이 다를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 예금의 출연자를 알았던 경우 예금의 출연자가 예금주가 된다.
- ③ 예금주 명의신탁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신탁자는 직접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치된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동사업의 경영을 위한 목적의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⑤ 예금계좌번호의 착오로 잘못 입금된 예금의 경우 송금인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의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